한중Zine
INChinaBrief
Vol.334 2017.03.06

「중국도시정보 20」*

중국 베이징의 경제산업 발전과 공간의 재편

작 성 |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 (xiuhan@idi.re.kr)

목 차

1. 중국 광역수도권 일체화 전략과 베이징
2. 베이징 경제산업 발전과 공간 변화
3. 징진지 전략에 따른 베이징의 변화
4. 종합 및 전망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전략에 주목, 각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 및 도시권의 발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도시정보> 시리즈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o 중국 광역수도권의 중심축인 베이징시가 갖는 경제·산업 특징과 공간 배치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의 광역수도권 일체화 지역발전 전략 파악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임

o 베이징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수도로서 축적해 온 자원과 강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형 경제를 육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산업 공간 배치와 조정을 해 왔음

o 1980년대 이래 베이징시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베이징의 경제·산업 및 공간배치 기본 방향과 정책 내용을 정리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김수한·유다형(2016:31-41)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1. 중국 광역수도권 일체화 전략과 베이징

■ 광역수도권 일체화 전략 - 징진지 도시군

● 중국 정부는 수도 베이징과 톈진직할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포함하는 광역수도권 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징진지의 전체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한 215,871km²이며 총인구는 2014년 기준 1억 1천만 명에 달함
- 허베이성의 면적과 인구는 각각 징진지 전체의 67%와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인구와 면적은 각각 19%와 7.6%를, 톈진시는 각각 14%와 5.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중국 광역수도권- 징진지 도시 분포

- 중국 정부는 징진지 전략을 통해 ① 베이징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인구의 체계적 분산 ② 역내 산업 재배치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

- 동부연해의 성장거점이 주장삼각주와 창장삼각주를 거쳐 점차 북상하게 되면서 수도 베이징과 직할시 톈진시가 광역수도권 및 북방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자원과 경제·산업 역량을 집적, 도시발전을 구가하기 시작했지만 허베이성의 발전은 지체됨

- 중국 징진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며 환발해권역의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지대로 부상하게 될 것임

●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산업구조 재편과 경쟁력의 제고,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빠른 경제성장이 예상됨

■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 및 공간 재배치

● 중국에서 도시군 육성 전략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중앙정부 국가발전계획 주관부서인 발전과 개혁위원회(발전개혁위)주도로 베이징·톈진·허베이 지방정부 산하 발전개혁위원회 간 협력기제 구성, 마스터플랜 마련 방안 등이 제기됨

● 그러나 징진지 지역발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은 2011년부터 시작된 〈12·5규획〉을 전후로 모습을 드러냄
- 이때 징진지 지역발전 계획의 대상지역의 지정, 환수도권 산업네트워크 조성 등의 의제가 대두되었고,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12·5규획〉에 '징진지도시권 조성' 항목이 포함되었음

●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점차 그 형태를 갖추어 가던 징진지 지역발전 계획은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소위 "하나의 밭을 셋으로 나누는(一亩三分地)관념의 타파" 연설을 분기점으로 하여 논의가 본격화됨
- 시진핑은 2014년 2월 열린 〈징진지협동발전좌담회〉에서 징진지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의 역할, 산업분업, 도시배치, 인프라통합, 종합교통망 등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정책, 프로젝트 조성 등의 구체적 정책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 이후 2014년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는 물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간 교통, 산업, 환경 등 분야의 협력안이 빠르게 체결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3·5규획〉에서 징진지 전략 방향과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 징진지 전략의 중점목표가 ▲수도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적 도시군 육성 ▲환발해 및 중국 북부권역의 발전 견인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베이징 비수도 기능의

체계적 해소 ▲징진지 공간 구획·지역별 기능 정비 ▲산업연계와 효율적 분업체계 형성을 들고 있음

- 징진지 전략의 핵심은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의 해소와 이와 연동한 광역수도권 경제·산업 및 공간의 재배치에 있음

- 중국 광역수도권의 중심축인 베이징시가 갖는 경제·산업 특징과 공간 배치는 징진지 전략의 기본 방향과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징진지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시의 성장과정 및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2. 베이징 경제산업 발전과 공간 변화

- 베이징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수도로서 갖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형 경제를 육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산업 공간 배치와 조정을 해 왔음

- 1980년대 이래 베이징시의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베이징의 경제·산업 및 공간배치 기본 방향과 정책 내용을 정리함
  -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축으로, 1953년 〈1·5〉규획이 시작되었고, 현재 〈13·5규획〉이 진행 중임[1)]

1) 중국은 1차~10차까지는 '계획',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부터는 '규획'이라고 구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모두 '규획'으로 통일하여 표기. 규획으로 개칭한 것은 경제·사회 체제, 메커니즘, 구조 등에 대한 전면적 갱신을 통해 기존 계획경제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됨.

1) 수도경제의 모색과 공간 특화 (1980~2000)

■ 1980/90년대 현황

- 1980년대에 베이징시는 낙후되었던 기계설비를 개선하고 현대식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추어 나갔으며, 시민들에게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축산물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였음

- 1980년대를 거치면서 베이징의 GRDP는 약 1.6배 늘어났으며 전체 GR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1980년 26.8%에서 1990년 37.5%로 늘어남

- 그러나 베이징시는 여전히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공공부문에 대한 과중한 재정지원 등 계획경제 시기부터 배태된 체제특징으로부터 유발된 문제가 상존하였음

- 또한 외지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인구 팽창과 각종 사회문제, 가용토지 및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됨

- 1991년부터 199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베이징시 〈8·5규획〉에서는 중국의 정치·문화 중심인 수도 베이징에 부합하는 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수도로서 구비하고 있는 과학기술 자산에 바탕을 두고 전자, 자동차 제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기술 발전을 통한 하이테크산업 성장을 도모하였음

- 또한 전자정보, 자문서비스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업과 더불어 전국 교통·우정 허브로서 수도가 갖는 강점을 발휘하여 금융, 상업, 관광 등 3차 산업의 발전을 강조함

- 더불어 엄격한 인구통제, 도시인프라 건설 확대, 과학기술·교육사업의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8·5규획〉기간 베이징시의 GRDP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8%였으며 1995년 3차 산업이 시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6%로 2차 산업의 비중을 추월하였고 농축산물 생산·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음

- 자동차산업, 전자, 하이테크산업, 건축업이 성장하였으며, 베이징신기술산업개발실험구,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등 산업단지가 조성됨

- 그러나 수자원 부족, 전력수급 불균형, 심각한 재정 적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

- 1996년부터 200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베이징시 〈9·5규획〉에서는 베이징의 정치·문화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화된 국제도시, 문화교육·과학기술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하였음

- 규획에서는 하이테크산업과 3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경제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기계장비, 건설, 상업, 금융보험, 관광, 운송·우정, 정보서비스자문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하이테크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전통제조업의 개조 가속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베이징시 〈9·5규획〉에서는 산업 배치에 따른 시의 공간 특화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3차 순환도로(3環)[2] 이내 시 중심 지역의 정치·문화 중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상업, 금융보험업, 정보서비스자문업, 과학기술,

2) 베이징시는 텐안문 광장을 중심점으로 동심원형으로 순환도로를 건설, 가장 안쪽의 내부 순환도로부터 2차 순환도로(2環)으로 부르며 2014년 7차 순환도로까지 개통되었다.

문화, 교육 등 3차 산업 경제권을 조성
- 베이징대학교 생물단지(生物城), 칭화대학교 과기원(科技园), 중관춘 하이테크산업 실험기지를 조성하여 하이테크산업벨트 기반을 마련
- 순이(顺义), 이좡(亦庄) 등 베이징 변두리 지역에 기술밀집형 공업을 집중 육성, 베이징-톈진-탕산 고속도로를 축으로 수출형 경제산업벨트를 조성
- 동·서·북부의 베이징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벨트를 조성

- 이와 더불어 환발해 타 지역으로의 에너지생산, 일부 농축산물 생산, 에너지·자원 소비가 높은 가공생산 업종의 점진적 이전 방안이 제시되었음

- 〈9·5규획〉기간 베이징시의 3차 산업이 시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3%로 성장했으며 하이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음

- 그러나 여전히 수도의 위상·사회수요에 도달하지 못한 베이징의 제조업 수준, 인구과밀에 따른 인프라 부족, 사회공공서비스 미비, 치안 불안, 베이징 남부권역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의 낙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짐

2) 수도경제 육성과 공간 재배치 (2001-2005)

-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베이징시 〈10·5규획〉에서는 하이테크산업 주도의 과학기술형 경제, 서비스경제, 풍부한 문화자원에 바탕을 둔 문화형 경제, 개방형 경제 등 발전을 통한 수도 기능과 수도경제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규획에서는 기존의 산업공간 배치를 기초로 하여 베이징의 경제·산업공간을 ▲도심의 3차 산업 밀집권역 ▲ 환도심하이테크산업벨트 ▲평원현대농업권역 ▲가공제조업권역으로 보다 세분화함

표 1| 중국 베이징시 <10·5규획> 산업공간 재배치 방안

권역	육성 방향
도심 3차 산업 밀집구	• 도심의 4환 이내에 최소의 청정형 하이테크기업, 주민생활 편익의 도시형공업, 대기업집단의 본사 및 R&D, 판촉센터 외에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금융보험, 상품유통, 우정전신, 문화체육 등 서비업을 육성
환도심 하이테크 산업벨트	• 중관춘과기원을 중심으로 하이테크산업을 집중발전시켜 관련 산업 기지 형성 •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밀집형 서비스 및 주민생활 서비스 산업 육성 • BIO, 의료장비R&D 중심의 베이징 서부 BIO혁신벨트 조성 • 베이징 남부 우주과기원, BIO연구와 의학혁신 중심의 순의과기원 조성 • 바다링(八達嶺)고속도로와 베이징-밀운, 베이징-톈진-탕산 고속도로 방향으로 과학기술 실용화 기지를 건설
평원 농업권역	• 현대농업과 농산품 가공업을 발전시켜 현도도시형 농업 생산과 가공기지 형성
현대가공 공업권역	• 농촌 공업에 기초하여 도심의 공업을 흡수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현대 제조업 기지 조성 • 시 북부와 동부에서 전자정보, 자동차, 식품음료, 경방직복장, 환경보호산업 집중 육성 • 남부와 동남부에는 기전, 의약, 광기전일체화 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서부에는 화학, 야금, 건축자재 산업을 발전시킴

출처: 北京市<10·5규획>.pp.8-9 내용 정리

● 이 같은 수도경제 육성과 산업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도심의 4차 순환도로 이내에 최소의 청정하이테크기업,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도시제조업, 대기업의 본사 및 R&D, 판촉센터 등을 제한적으로 입지하도록 하였으며,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금융보험, 상품유통, 우정·통신, 문화체육 등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했음

- 도심의 제조업 공장을 순차적으로 외곽으로 이전, 〈10·5〉규획 기간 도심의 공업용지 비율을 8.74%에서 7%로 낮추도록 하였음
- 〈10·5규획〉기간 베이징시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은 11.9%였으며 서비스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제조업, 현대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3차 산업 비중이 시 전체 GRDP의 77%를 차지
- R&D경비는 연평균 22.1% 성장했다. 중관춘과기원, 상무중심권역,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등의 중점 기능권역 발전이 가속화

3) 수도경제의 발전과 베이징 공간의 확산 (2006-2015)

-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베이징시 〈11·5규획〉에서도 중국의 정치·문화·국제교류 중심지로서의 수도기능에 부합하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와 공간발전 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 우선 첨단산업과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주요 경제·산업 목표로 삼고 금융, 문화창의산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R&D, 정보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업과 IT, BIO 중심의 하이테크제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하이테크산업 중심지인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발전이 가속화 되었음
  -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1978년 3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988년 국무원은 중관춘을 중국의 첫 번째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발구로 정식 승인
  - 1999년 베이징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서 중관춘과학기술구로 명칭을 변경. 2009년 국무원은 중관촌을 국가자주혁신시범구로 재설정.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도심을 수도기능 핵심지역으로 선정하여 금융, 문화,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대신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고 교통, 환경,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품교역시장을 점차적으로 폐쇄하도록 하였음

- 또한 도시기능개척권역을 설정하여 과학기술, 교육, 문화체육, 비즈니스서비스, 물류, 정보 서비스 및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반

제조업을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함

- 신도시발전권역을 건설하여 현대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도록 하였음
  - 순이, 퉁저우(通州), 이좡 등 주변부에 산업형 도시를 건설하여 도심인구와 경제기능의 이전·분산을 도모
  - 신국제공항에 기초하여 조성되는 순이신도시는 임항산업중심과 제조업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
  - 베이징의 행정기능 분산을 위해 조성되는 퉁저우신도시는 문화산업과 MICE, 공공서비스 발전을, 그리고 이좡신도시에는 전자, 자동차, 의약, 장비 등 하이테크산업과 제조업 기지로서의 역할 부여

- 〈11·5규획〉기간 베이징시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은 11.4%에 달했으며 3차 산업 비중이 시 전체 GRDP의 75%를 넘어섰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베이징시 〈12·5규획〉에서는 혁신경제를 강조
  - 하이테크산업, 생산자서비스업, 차세대정보기술·BIO·신에너지,절전친환경, 신에너지자동차,신재료,첨단장비제조,항공우주 등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방안 제시
  - 중관춘과학원, 미래과학기술단지(未来科技城), 베이징북부 R&D서비스·하이테크산업발전벨트, 남부의 하이테크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벨트 조성 계획

- 이상과 같이 베이징은 광역수도권의 성장거점으로서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도경제를 발전시켜 왔음

- 도시성장과 산업입지의 확산 분포에 따라 톈안먼(天安门)을 중심점으로 하여 동심원을 그리며 도시 공간을 확대시켜 옴
  - 이를 통해 중심지에 집적된 경제역량과 자원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베이징이라는 행정 권역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짐
- 베이징의 수도경제 역량 확대·강화와 더불어 인구과밀과 도시기능의 과다 현상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옴

3. 징진지 전략에 따른 베이징의 변화

-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으로 하는 〈13·5규획〉기간 중국 베이징시는 수도로서의 전략적 지위 구현을 규획 기간의 핵심목표로 설정

- 베이징 시정부는 국가급 지역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한 징진지 도시군 전략의 본격적 추진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수도로서의 베이징 전략지위 구현, 수도를 핵심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군 조성을 목표로 제시함

- 수도 베이징의 발전목표와 징진지 도시군 전략의 지향이 일치되었음

■ 비수도기능의 해소

- 베이징시 〈13·5규획〉에서는 베이징 도시문제의 근원을 도시의 기능이 과다하고 너무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과밀 현상을 야기함으로서 환경오염, 경제·사회 각 요소의 수급 긴장 상태를 유발했다고 진단

- 이 같은 진단에 바탕을 두고 베이징시는 〈13·5규획〉 기간 비수도기능의 체계적 해소, 도시기능 조정, 인구 분산, 지역협조, 수도 핵심기능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음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증량(增量)통제, 이전·분산, 인구통제 등의

정책방침을 제시함

- 우선 증량통제 방침에 따라 수도 기능에 부적합한 산업 증가 억제, 교육·의료 및 행정기관 증가 억제, 기존 산업 및 물류· 공공서비스 기관을 베이징 외곽으로 이전과 분산하는 계획을 세움

- 구체적으로 일반제조업, 특히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조정을 추진하며 수자원 소비가 많은 농업의 통제, 베이징 시내의 권역 물류기지 및 전문시장의 퇴출과 이전, 교육·의료 및 행정서비스 기구의 이전과 기능 분산이 진행됨

-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규모의 통제, 인구 분산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 목표와 방침을 세웠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기제 방안이 제기됨

■ 혁신경제 정책

- 〈베이징 13·5규획〉에서는 혁신을 통한 발전 도모를 수도로서의 전략적 지위 구현, 징진지 도시군 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규획에서는 혁신역량 강화 방안 및 국가자주혁신시범지역 건설 그리고 하이테크·정밀·첨단 경제구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산업발전 방향을 제기하고 산업조정에 따른 공간 재편 구상을 제시하였음

- 혁신개혁 추진, 견인작용 강화, 인적자원지원 강화 등을 내용을 한 경제·산업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베이징 13·5규획〉에서는 하이테크·정밀·첨단 산업구조 구축은 중속성장의 신창타이 시대에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내생성장 동

력 창출 및 수도 지위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 가속화 방안을 제기하며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가속,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문화산업발전 추동, 도시형 현대농업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였음

- 또한 베이징이 갖는 금융 · 과학기술 · 정보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강점을 확대 · 발전시켜 소비자서비스업의 브랜드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음

- IT, BIO, 신에너지, 신소재, 스마트제조, 항공우주, 신에너지자동차, 궤도교통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문화예술, 신문출판, 광고영화 등 전통적 우위 문화산업 강화, 농업과 2 · 3차 산업 융합 촉진 등을 제기하였음

- 중국 산업의 스마트화 제고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및 정밀화 촉진, “인터넷+” 실시 등 과제를 제기하고, 인터넷 기술의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생산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 특히 중관춘국가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시범지역 건설에 대한 상세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공간정책

● 이 같은 경제·산업 정책 방향과 연동하여 베이징시는 〈13·5규획〉에서 도시공간을 ▲도심6개구(城六区) ▲평야지구(平原地区) ▲산간지구(山区)의 3대 권역으로 특화 발전시키고자 함

그림 2|베이징 <13·5규획> 3대 권역 및 행정구 분포

자료 : 베이징<13·5규획>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 도심6개구는 세계도시 베이징 건설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서 비수도 기능 해소 정책의 주요 대상지이며 둥청구, 시청구, 차오양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스징산구의 6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됨

- 평야지구는 기능 이전 대상지이자 신기능의 발현지역으로서 퉁저우구, 순이구, 다싱구, 팡산구, 창핑구의 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됨
  - 과학기술 · 문화, 교육 · 의료, 국제교류 등 도시기능 및 하이테크 · 정밀 · 첨단산업의 집중지이자 징진지 도시군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퉁저우에는 현재 행정부중심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싱과 허베이 접경지대에 베이징신공항이 건설되고 있음

- 산간지구는 징진지 서북부 생태보호지대, 수도생태방어벽이자 수자원보호지역으로서 수도생태문명건설의 선도지역으로 지정
  - 이 지역은 먼터우거우구, 핑구구, 화이러우구, 미윈구, 옌칭구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여건에 맞게 관광 · 휴양 등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 생태친화형 산업체제를 구축
  - 도심으로부터의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 자원이전을 체계적으로 승계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임

4. 종합 및 전망

-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징진지 전략은 시진핑 중국 지도부 집권2기의 대표적 권역발전 모델임

- 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자원의 집중투입이 이루어져 베이징의 도시 · 산업공간 재편의 가속화, 규모의 광역화 양상이 두드러질 것임

- 중국 광역수도권의 중심축인 베이징시가 갖는 경제 · 산업 특징과 공간 배치는 징진지 전략의 기본 방향과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베이징시는 사회주의 중국의 수도로서 갖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기반형 경제를 육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제·산업 공간 배치와 조정을 해 왔음

- 베이징시는 도시성장과 산업입지의 확산 분포에 따라 톈안먼을 중심점으로 하여 동심원을 그리며 도시 공간을 확대시켜 왔음

- 이를 통해 중심지에 집적된 경제역량과 자원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과정을 거쳐 왔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베이징이라는 행정 권역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음

- 베이징의 수도경제 역량 확대·강화와 더불어 인구과밀과 도시기능의 과다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13·5규획〉기간 수도 베이징의 발전목표와 징진지 도시군 전략의 지향이 합치되었음

- 〈13·5규획〉 기간 추진되는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의 해소 ▲공간재편 ▲산업정책 등의 핵심 목표와 전략이 징진지 도시군 형성의 핵심 추동력으로 작동하게 되었음

- 베이징 외곽 평야지구의 퉁저우, 순이, 다싱, 팡산, 창핑 일원이 허베이와 공간·기능적으로 연계되는 접합지대가 될 것임

- 이에 따라 경제·산업, 행정·공공서비스 등의 도시기능이 특화된 신성장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공간적으로 허베이성 및 톈진시로의 외향적 확장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징진지 전략 추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 광역수도권 구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이에 기초하여 신성장공간 등장, 산업구조 재편, 교통·물류망 변동 등 중국 초광역 도시공간 재편 및 산업네크워크 구축 등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참고자료

김수한·유다형(2016),『중국 징진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中国国务院(2016),《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北京市人民政府(1991),《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年规划和第八个五年计划纲要》
北京市人民政府(1996),《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九五”计划和2010年远景目标纲要》
北京市人民政府(2001),《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北京市人民政府(2006),《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北京市人民政府(2011),《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北京市人民政府(2016),《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